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법 직업 탐색 프로그램’ 입법체험, 모의재판으로 꿈 찾는다



역할극 형태의 모의재판을 체험하는 학생들. 대전솔로몬로파크 제공

학교보건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우리는 수많은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간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 법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법을 보다 쉽고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 바로 ‘솔로몬로파크’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 법 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로파크는 모든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기관. 대전과 부산, 두 곳에 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법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법 교육을 통해 성숙한 규범의식을 기르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전솔로몬로파크

크 내 법 체험관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저스티스홀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재판실 △체험교도소 등 총 5개의 체험실을 순차적으로 돌며 직업 탐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스티스홀에서는 대검찰청,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과 같은 법무부 소속 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직업을 탐색한다. 입법체험실에서는 국회의 역할과 법률제정절차를 배운다. 시나리오 역할극을 통해 입법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선거 참여의 중요성도 되새긴다. 이곳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직업을 탐색한다. 과학수사실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체험, 지문채취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과학수사의 종류와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과학수사요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모의재판실에서는 역할극 형태로 모의재판을 직접 해보면서 공판 순서를 배우고 재판의 종류에 대해 배운다. 이를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꿈꿀 수 있다. 체험교도소에서는 교도소 및 전통형벌을 체험하고 위치추적 전자감독 장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배우고 보호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법 직업 탐색 프로그램'은 한 회에 15~1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예약가능인원은 대전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solomondj.lawnorder.go.kr/new2/)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대전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2-863-3165

▶이월상 기자 leews11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판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꿈틀꿈틀 마린스쿨’바다 속에도 문화유산이?



파손된 도자기를 접합하면서 문화재보존과학자 직업을 체험하는 학생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오래 전 한반도 주변 바다를 지나던 선박이 난파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면? 그 난파선은 한 시대를 온전히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 된다. 난파선에서 나온 물건들은 우리가 보존하고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는 것.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처럼 바다 깊숙이 잠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 기관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이를 알려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꿈틀꿈틀 마린스쿨’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관련 있는 △큐레이터 △해양역사학자 △문화재 보존과학자 △수중고고학자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알찬 진로 프로그램이다.

전남 목포시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월 19일(목) △10월 26일(목) △11월 2일(목) △11월 9일(목) 총 4회 3시간씩 열린다. 프로그램 모집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1회에 한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날짜별로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다른데, 10월 19일에는 큐레이터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큐레이터의 해설을 듣고 큐레이터가 하는 일을 배워본다. 10월 26일에는 해양역사학자가 나선다. 이날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은 전통선박이 과거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항해했는지 자료를 통해 살펴봄여 해양역사학자가 하는 일을 살펴본다. 11월 2일은 문화재 보존과학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날에는 파손된 도자기를 접합하는 체험을

해보면서 문화재 보존과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11월 9일에는 수중고고학자에 대해 배운다. 수중발굴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중고고학자가 하는 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수중고고학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

‘꿈틀꿈틀 마린스쿨’은 한 회에 20명 내외 인원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홈페이지 내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 문의 061-270-2047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문화재보존과학자: 문화재의 파손된 부위를 복원,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손상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의 원형을 되살리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며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한다. 유적, 유물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꼼꼼함,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다.